

2025년 세계 농산업 전시회 ① 중국 CAC 2025

‘CAC(China International Agrochemical and Crop Protection Exhibition)’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농약 및 작물보호 부문의 대규모 농업 전시회로, 제25회 CAC는 2025년 3월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NECC: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 개최된 CAC 2024에서는 약 2,0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여 농약 및 작물보호 부문의 혁신 사례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CAC의 주요 하위 행사로 개최되는 ‘중국 국제 작물보호 전시회(China International Crop Protection Exhibition)’는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전시업체가 참여하며, 작물보호 분야의 최신 생산 기술, 고품질 제품, 첨단 산업 서비스 등을 소개함. 또한, ‘CAC 컨퍼런스 위크(CAC Conference Week)’에서는 세계 각국의 농약 및 비료 전문가들이 글로벌 농약 시장 및 무역 동향, 현대 농업 기술, 시장 진출 사례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중국 CAC 2025 관련 정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에서 개최되는 농약 및 작물보호 관련 농업 전시회주요 행사 ① ‘CAC 컨퍼런스 위크’: 세계 각국의 농약 및 비료 전문가들이 각 부문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주요 행사 ② ‘작물 보호 전시회’: 약 1,000개 글로벌 살충제 기업이 참여하여 산업 혁신 사례 제공
개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3월 17일 ~ 3월 19일매년 1회 개최
개최국가	중국
개최장소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개최규모 (참가업체 수)	약 2,000개 이상의 참가업체가 참여 (2024년 기준)
개최규모 (참관객 수)	약 82,000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 (2024년 기준)
개최규모 (전시 면적)	약 140,000㎡ 이상 (2024년 기준)
개최규모 (참가국 수)	124개국 이상 (2024년 기준)
산업분야	농약, 작물보호, 비료, 종자, 농기계
전시 품목	살충제, 비농업 살충제, 살충제 제조 기술, 비료, 제형 기술, 종자, 육종 기술, 농약 제조 장비, 특수 작물 보호 장비, 작물 성장 촉진제, 물류 및 운송 서비스

주최기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화학 산업 분과위원회 (CCPIT Sub-Council of Chemical Industry)
전화	0086-10-64285314 (Crop Protection 담당관)
이메일	machen@ccpitchem.org.cn (Crop Protection 담당관)
홈페이지	http://www.cacshow.com/

CAC (중국/상하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농산업 시장 트렌드

- 중국의 농기자재 및 농산업 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스마트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 중. 중국 정부는 식량 안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기자재 및 첨단 농업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농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이에 따라 자동화 농기계, 정밀 농업 솔루션, 친환경 비료 및 농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농업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비료) 중국 각지에서 비료 사용 제로 성장 실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비료 사용량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비료 사용량은 5,079.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16% 감소. 단 친환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중
- (종자) 2021년 세계 10위의 종자 수입액이며 주요 생산 작물은 오이, 토마토, 수박, 배추, 시금치 등
- (농약) 중국은 세계 최대 농약 소비 시장으로, 2023년 농약 소비량이 약 120만 톤에 달함. 최근 고독성, 고잔류 농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 농약과 바이오 농약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대기업 집중 육성을 추진 중. 특히, ADAMA, Rainbow Agro, Yangnong Chemical 등 대형 농약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음

■ 주력 수출 전략 품목

- 비료 (요소비료, 복합비료, 기능성비료), 종자 (고추, 청경채, 배추, 양파, 무), 농약 (제조제, 바이오 농약, 친환경 농약 및 저독성 농약)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비료) 2021년 10월 15일부터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증서(수출통관단)를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짐. 또한 중국에서 비료는 농업농촌부와 비료 등록 심사 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며, 중국에서 생산, 수입,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등록(registration) 또는 신고(record-filing)을 완료해야 함. 비료는 제품 유형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상이하며, 비료 등록은 중국의 비료 생산업체나, 비료 수출 해외 기업이 할 수 있으나, 해외 비료 등록 신청사는 반드시 중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CAC (중국/상하이)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종자) 신규 품종의 경우 검증 시험을 실시하여 중국의 관리 규정에 부합되는 종자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국 종자 유통 업체는 신규 품종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임. 중국 수입 통관 담당 기관인 해관의 수입종자 검역요건은 매우 엄격한 편으로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식물 검역증, 유전자 변형 증명서, 라벨링)를 잘 구비해야함. 통관절차는 중국 현지 통관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임
- (농약) 한국산 농약 수입관세는 한중 FTA에 따라 0% 적용, 부가가치세 13% 부과. 중국에서 유통 및 수입되는 모든 농약 제품은 중국 농업농촌부 등록 필수이며,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3-5년 정도의 심사 기간 소요됨

■ 박람회 참가 시 유의사항

- 전시품 운송 및 통관 절차: 전시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동·식물검역증, 원산지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함. 해상 운송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시 품목의 특성에 맞게 항공 운송이나 핸드캐리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함
- 현지 결제 수단 준비: 중국에서는 일부 국제 신용카드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안화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큰 금액의 결제는 사전에 현지 업체와 결제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신 및 번역 서비스: 전시장 내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현지 SIM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또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자료나 카탈로그는 중국어로 준비하여 현지 바이어와 원활한 소통 필요
- 비즈니스 매너 및 문화 이해: 중국 바이어는 신뢰 구축을 중시하므로, 약속 시간 엄수와 격식 있는 태도가 중요함. 명함 교환 시에는 두 손으로 건네고, 중국어 버전의 명함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베트남 AGRITECHNICA ASIA

농산업

2025년 세계 농산업 전시회 ② 베트남 AGRITECHNICA ASIA

‘AGRITECHNICA ASIA’는 독일농업협회(DLG: Deutsche Landwirtschafts-Gesellschaft)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농기계 전시회인 ‘AGRITECHNICA’에서 파생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동 전시회는 지난 2017년부터 태국 방콕(Bangkok)을 중심으로 개최된 바 있으나, 2025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시(Ho Chi Minh City)에서 최초 개최될 예정임. 세계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은 이번 AGRITECHNICA ASIA 2025에서 아시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 솔루션을 선보이고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 및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임. 한편, AGRITECHNICA ASIA 2025는 원예 및 화훼 부문의 선도적인 전시회인 ‘HortEx’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전시회 참여자들에게 농기계 및 작물 재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농업 부문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AGRITECHNICA ASIA 2025 관련 정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독일농업협회(DLG)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농기계 전시회인 ‘AGRITECHNICA’에서 파생아시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 솔루션 제공원예 및 화훼 부문의 선도적인 전시회인 ‘HortEx’와 동시 개최	주최기관	독일 농업 협회 (DLG: Deutsche Landwirtschafts-Gesellschaft)
개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3월 12일 ~ 3월 14일매년 1회 개최 (2025년 이후 짝수년도 태국, 홀수년도 베트남 개최 예정)	전화	+66 96 7228 6917
개최국가	베트남	이메일	R.Veerawong@DLG.org
개최장소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	홈페이지	https://agritechnica-asia.com/
개최규모 (참가업체 수)	약 200개 이상의 참가업체 참여 예정		
개최규모 (참관객 수)	약 15,000명 이상의 참관객 방문 예정		
개최규모 (전시 면적)	약 10,000㎡ 이상		
개최규모 (참가국 수)	35개국 이상 참여 예정		
산업분야	첨단 농기계, 정밀 농업, 관개 솔루션, 농업 기술		
전시 품목	트랙터, 정지(整地), 조파, 파종, 작물 보호, 비료, 관개, 수확, 신재생에너지, 운송 및 저장, 농업 투입물, 정밀 농업, 디지털화		

1) Agritechnica Asia, AGRITECHNICA exhibition expands reach in growing Asian markets, 2024.09.12.
2) IFW Expo Heidelberg, AGRITECHNICA ASIA 2025

베트남 AGRITECHNICA ASIA

농산업

AGRITECHNICA ASIA (베트남/호치민)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농산업 시장 트렌드

- (시설원예) 베트남의 화훼 산업은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을 중심으로 자동 온실, 냉장 수송 등 최신 기술이 도입 중. 2020년 기준, 베트남의 화훼 재배 면적은 약 45,000헥타르에 달하며, 생산액은 헥타르당 2,258.66달러로 보고됨. 베트남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과 지능형 온실 도입을 적극 추진 중. 2022년 6월, 하노이 농업과학원 내에 한국형 지능형 온실이 준공되어 첨단 농업 기술의 현지화를 지원 중. 또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협력하여 2026년까지 1.5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데모 온실을 조성 중
- (농기계) 베트남은 농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기계화 수준을 높이고 있음. 2020년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농경지 정비 기계화율은 94%, 파종 및 파종 관리 42%, 벼 수확 77%에 달함

■ 주력 수출 전략 품목

-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및 장비, 농업용 플라스틱 제품(온실 필름, 멀칭 필름 등), 농업용 LED 조명, 농업용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 (농기계) 2륜/4륜 트랙터, 핸드 트랙터, 벼 탈곡기, 콤바인 정미기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농기계)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인 STAMEQ(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는 현재 ISO, IEC, A/STM, JIS, BSI 규격을 베트남의 규격으로 적극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 인증이 베트남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베트남 자체 인증으로 TVCN과 QCVN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품의 규격과 인증을 관리 중. 이와 관련된 규격준비 및 담당을 베트남기술위원회(National Technical Committee, TCVN/TC)가 하고 있으며 인증과 관련된 행정관리를 VSQI(Vietnam Standards and Quality Institute)에서 하고 있음. STAEMQ는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QUATEST1~3, QUACERT 등을 두고 있으며 각 평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적합성 검사 품목 범위가 다름. 베트남은 인증과 관련하여 규정이 중복된 것이 다수이고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복잡하고 베트남어로만 양식 및 서비스가 지원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 필요

베트남 AGRITECHNICA ASIA

농산업

AGRITECHNICA ASIA (베트남/호치민)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트랙터는 교통부 소관 검사 대상품목임. 제품품질 검사는 제품과 관련된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대상품목을 정하여 두고 있어 제품표준 규격과 함께 제품검사를 위한 관리부처 정보도 함께 파악이 필요함. 예를 들어 농기계 중 트랙터는 교통부 소관 검사품목으로 분류되어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에서 품질검사를 진행함
- 인증과 함께 환경 관련 규제 사전 파악이 필요함.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운반구, 화학물질 연료 등은 베트남 내 환경보호법 (No. 52/2005/QH11)에서 규정한 환경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대표적인 수입 금지 품목으로 특정조건의 중고 기계, 장비, 폐기수준 운반구 등이 있고, 특히 일정 수준 이하의 중고 농기계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되어 수출시 관련된 최신 조항을 파악하여 인증과 함께 준비해야 함

■ 진출전략 및 유의사항

- (베트남 내 딜러 및 파트너사 활용 전략) 베트남에서는 인기 있는 수입 제품들이 딜러 또는 파트너사를 통해 고객과 빠르게 소통하며, 프로모션, 홍보, 간단한 A/S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 진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현지 딜러 선정 시 유통 가능 범위, 영업력, A/S 제공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임. 글로벌 경쟁기업들도 남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딜러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 남부는 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북부는 홍강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해 유통 거점으로 중요
- (가격 경쟁력과 추가 혜택 제공 전략) 중국산 제품은 저렴한 가격과 유통 채널 확대 전략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음. 한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산보다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혜택 제공으로 차별화를 꾀해야 함. 트랙터와 콤바인의 경우 유지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 부품 및 소모품을 저가로 제공하거나 A/S 혜택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 반면, 탈곡기와 정미기는 가격 할인 혜택과 무상보증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
- (제품 현지화와 기술 적응성 강화) 한국산 제품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현지 지형과 농업 특성에 맞춘 제품 현지화가 필요. 습지형 트랙터, 작물 크기와 기후를 고려한 콤바인, 인디카 장립형 쌀 품종에 적합한 정미기, 기본 성능 강화된 탈곡기 등으로 현지 적응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 이러한 현지화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회하는 차별점이 될 수 있음

베트남 AGRITECHNICA ASIA

농산업

AGRITECHNICA ASIA (베트남/호치민)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베트남은 지역별 주력 생산 작물과 선호하는 농기계가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지역별 마케팅이 필요. 메콩강 델타와 홍강 델타는 쌀 생산이 중심이므로 트랙터, 콤바인, 탈곡기, 정미기 관련 홍보를 집중해야 함. 중북부 연안지대는 쌀과 사탕수수가 주요 작물로, 안정적인 A/S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발굴과 함께 트랙터 및 콤바인 중심으로 홍보하면 효과적. 중북부 고원지대는 핸드 트랙터가 선호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함. 또한, 중고 농기계 부품의 주요 유통 경로인 남부 지역에 총판을 발굴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

인도네시아 INAGRITECH

농산업

2025년 세계 농산업 전시회 ③ 인도네시아 INAGRITECH 2025

INAGRITECH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농기계 및 농업 기술 전시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각국 기업, 정부 부처 및 기관, 무역 협회 등이 참석함. 동 전시회는 지난 2011년 최초 개최된 이후 농업 비즈니스와 관련된 개발 및 투자를 지속 촉진하고 있으며, 2025년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I EXPO: Jakarta International Expo)에서 제11회를 맞이할 예정임. INAGRITECH는 참여자 간 다양한 농산업 부문의 최신 트렌드 공유 및 B2B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특히 팜유, 설탕, 농약 등과 관련된 혁신적인 농기계 및 농업 기술을 전시함. 아울러, INAGRITECH는 제품 전시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자들에게 분야별 전문지식 및 최신 혁신 사례를 제공함

인도네시아 INAGRITECH 2025 관련 정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농기계 및 농업 기술 전시회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기업·정부·부처·무역 협회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 기회 제공농기계 및 농업 기술 혁신 사례를 포함, 농업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부문 전시
개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7월 29일 ~ 7월 31일매년 1회 개최
개최국가	인도네시아
개최장소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akarta International Expo)
개최규모 (참가업체 수)	약 400개 이상의 참가업체가 참여 (2024년 기준)
개최규모 (참관객 수)	약 25,000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 (2024년 기준)
개최규모 (전시 면적)	약 15,000㎡ 이상 (2024년 기준)
개최규모 (참가국 수)	43개국 이상 (2024년 기준)
산업분야	농기계, 농업 기술, 첨단 기술, 비료
전시 품목	트랙터, 자동화 농기계, GPS, 드론, 스마트 온실농업, 사물 인터넷(IoT), 비료 살포기계, 관개 시스템, 수경 재배 시설, 파종 기계

주최기관	GEM 인도네시아 (Global Expo Management Indonesia)
전화	+62 21 54358118
이메일	info@gem-indonesia.com
홈페이지	http://www.inagritech-exhibition.net/

1) INAGRITECH, Exhibit+: Exhibition info: THE LARGEST TRADE FAIR IN THE AGRICULTURAL MACHINERY AND TECHNOLOGY SECTOR!
2) INAGRITECH, Exhibit+: Exhibitor profile: EXHIBITOR PROFILE

인도네시아 INAGRITECH

농산업

INAGRITECH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농산업 시장 트렌드

- 인도네시아 농기계 시장은 정부주도형(공공조달)과 민간주도형 시장이 공존하는 시장이며, 55마력 이하의 정부주도형 시장(공공조달)이 농기계 공급의 8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 중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식량 증산을 위해 농기계를 보급 중임
- 공급하는 주요 농기계는 경운기, 양수기, 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농약 살포기 등이 있으며 매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공급 수량의 변화가 있음. 2021년 인도네시아의 농업 기계화 지수(Mechanization index, hp/ha)는 1.68로 각각 1.6인 베트남 또는 필리핀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인도네시아에 운용 중인 트랙터는 수요 대비 5.7% 수준이며, 이앙기는 약 2%, 콤바인은 약 8.6% 수준임
- 작부체계 전 단계의 기계화가 진행 중이며, 주요 농기계를 수입에 의존함. 인도네시아 농기계 시장은 약 80%가 중국, 인도, 태국, 미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현지 농기계 기업의 부족이나 농기계 관련기술의 부재뿐만 아니라 수입 원자재의 관세가 수입 농기계에 대한 관세보다 약 2.5% 높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농기계보다 수입 농기계의 제품이 더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 주력 수출 전략 품목

- 50마력대 트랙터, 보통형 콤바인, 승용이앙기

■ 농기계 수입 및 유통구조

- (정부주도형 시장(공공조달)이 시장을 주도) 농기계 수요는 기업농의 Oil-Palm 플랜테이션 농업 수요에 의해 민간이 주도하는 90- 100마력 이상 시장과 중소농의 작물 재배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저마력(80마력 미만) 시장으로 구분됨.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수입하는 농기계의 80%는 정부가 주도하여, 정부의 시장 영향력이 절대적임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일반관세, 아세안 특별관세, FTA관세 등 혼용) 인도네시아는 일반관세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혜관세를 기본적으로 운영 중이며, 한국, 중국 및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됨에 따라 2006년부터 FTA 관세를 추가로 운영 중

인도네시아 INAGRITECH

농산업

INAGRITECH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가운데, 보호산업 등은 고율의 관세가 적용)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로 對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됨. 그러나 농기계 부품 수출은 수입 원자재에 대한 반덤핑 규제 등으로 농기계 대비 2.5-5% 높은 관세율을 적용 중임
-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에 따른 세금의 추가 부과) 인도네시아는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으로 수입통관을 구분하고 있음. 보세업체는 수입절차가 간소하지만 내수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없으며, 비보세업체 통관은 매 수입 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함. 내수 혹은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자 하는 업체 및 완제품 수입을 하는 업체는 보세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진출전략

- (정부주도형 시장(공공조달)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 對인도네시아 시장은 50마력대 트랙터와 부속작업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부주도형 시장(공공조달)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정부주도형 시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한 농기계 검정 단계 등을 거치게 되므로, 시장 진입 시에 내구성에 대한 판정이 동반됨. 對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단일 품목 판매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다양한 제품의 출시가 필요함
- (높은 선호도와 중간선호도의 사이에 포지셔닝) 한국 농기계의 내구성과 평판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과 정비비용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양자, 다자간 협력사업 등 정책과 연계한 사업의 발굴)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으로 한국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이므로 다양한 정책적 협력 사업의 발굴이 용이하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세계농업기구 등 다양한 농업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 무대이므로 민관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발굴 및 연계가 용이함

독일 AGRITECHNICA

농산업

2025년 세계 농산업 전시회 ④ 독일 AGRITECHNICA 2025

독일 AGRITECHNICA는 세계 최대 농기계 관련 전시회로, 글로벌 농기계 선도 기업들이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농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번 AGRITECHNICA 2025의 핵심 주제는 ‘터치 스마트 효율성(Touch Smart Efficiency)’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존 농업 관행에 첨단 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이와 관련, 센서·드론·클라우드 컴퓨팅·AI 알고리즘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토양 개선, 기후 회복력, 작물 성장을 비롯한 파종~수확 농업 프로세스 전반에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화학 제품 사용을 감축하는 기술을 선보일 계획임. 아울러, 참여자들에게 혁신 기술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상호작용형·실물형 전시를 개최하며, 청년 사업가 및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포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예정임

독일 AGRITECHNICA 2025 관련 정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농기계 관련 전시회지속가능성 및 혁신 농업 기술에 초점기존 농업 관행에 첨단 기술을 통합한 제품 전시, 직접적인 체험 기회 제공	주최기관	독일 농업 협회 (DLG: Deutsche Landwirtschafts-Gesellschaft)
개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11월 9일 ~ 11월 15일2년 마다 1회 개최	전화	+49 69 24788 265
개최국가	독일	이메일	agritechnica@dlg.org
개최장소	하노버 박람회장(Hannover Deutsche Messe)	홈페이지	http://www.agritechnica.com/en
개최규모 (참가업체 수)	약 2,700개 이상의 참가업체가 참여 (2023년 기준)		
개최규모 (참관객 수)	약 470,000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 (2023년 기준)		
개최규모 (전시 면적)	약 389,000㎡ 이상 (2023년 기준)		
개최규모 (참가국 수)	149개국 (2023년 기준)		
산업분야	농기계, 특용작물, 비료, 종자, 작물보호, 첨단기술		
전시 품목	트랙터, 특용작물 기술, 파종 기술, 저장고, 작물 수확 기술, 로봇, 농업 소프트웨어, 정밀농업, 작물보호 기술, 비료, 첨단 기계		

1) AGRITECHNICA, About the Fair: World's leading trade fair for agricultural technology
2) AGRITECHNICA, News: Guiding theme of AGRITECHNICA 2025

독일 AGRITECHNICA

농산업

AGROTECHNICA (독일/하노버)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농산업 시장 트렌드

- (농기계) 독일 농기계 시장은 트랙터 부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농기계 시장의 약 46.4%를 차지. 또한, 농업 인력의 감소와 도시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 기계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이며 특히 고마력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한편, 독일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독성·고잔류 농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바이오농약 및 환경친화적 농약의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농기계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친환경 기술과 시스템이 장착된 트랙터와 같은 스마트 농업 기계의 수요가 증가 중

■ 주력 수출 전략 품목

- (농기계) 독일에서는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품종 포장기)과 같은 기본적인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음. 규모가 큰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작물을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콤바인도 선호함. 최근에는 트랙터의 사용 용도를 확장할 수 있는 트랙터 로더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트랙터 로더를 사용해 흙을 퍼내고, 덩핑하고, 인양하는 기계로 사용할 수 있게 됨. 이외에는 트랙터 스프레더와 노면 파쇄기, 잔디깎이 등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음. 또한 여성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미니 트랙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관세/통관/검역 제도

- (농기계) CE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계류를 따로 지정하고 있음. 단일 제품에 대한 CE 인증 비용은 약 6,000유로이며, 대형 기계일 경우 인증 비용이 약 20,000-30,000유로임. 인증 서비스 기관으로는 TUV Rheinland, TUV SUD, TESTLAB 등이 있음

튀르키예 GROWTECH Antalya

농산업

2025년 농산업 전시회 ⑤ 튀르키예 GROWTECH Antalya 2025

튀르키예 그로우테크 안탈리아(GROWTECH Antalya)는 글로벌 농업 관계자들이 온실기술, 관개 시스템, 식물 영양 및 보호 솔루션 등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온실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음. GROWTECH Antalya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을 목표로 참여자들에게 직업 전망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아울러,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ATSO 그로우테크 농업 혁신 어워드’ 시상식 이벤트를 개최하며, 글로벌 농업 관계자들 간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회담이 시행됨. 주최 기관인 인포마 마켓(Informa Markets)의 설문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참가 업체의 약 97%가 ▲신규 시장 개척, ▲기업 인지도 제고, ▲비즈니스 협약 체결 등의 이점을 기반으로 동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됨

튀르키예 GROWTECH Antalya 2025 관련 정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농업’ 관련 세계 최대 규모 농업 전시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 장비, 솔루션 공유의 플랫폼	주최기관	인포마 마켓 (Informa Markets)
개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1월 19일~ 11월 22일• 매년 1회 개최	전화	+90 530 416 60 04 (튀르키예) +82 63 919 1454 (한국 지부)
개최국가	튀르키예	이메일	serra.kaya@informa.com (튀르키예) hyh2023@koat.or.kr (한국 지부)
개최장소	안탈리아 엑스포 센터(Antalya Expo Centre)	홈페이지	www.growtech.tr
개최규모 (참가업체 수)	약 572개 이상의 참가업체가 참여 (2023년 기준)		
개최규모 (참관객 수)	약 49,400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 (2023년 기준)		
개최규모 (전시 면적)	약 60,000㎡ 이상 (2023년 기준)		
개최규모 (참가국 수)	125개국 이상 (2023년 기준)		
산업분야	친환경 농업, 농업기술, 정밀농업, 스마트농업, 온실농업		
전시 품목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식물 영양제, 식물 보호 솔루션, 관개 시스템, 종자, 친환경 시설자재, 농기계		

1) GROWTECH ANTALYA, GROWTECH ANTALYA 20-23 November 2024 Anfaş Expo Center, Antalya
2) Growtech, 2022 Post Show Report

튀르키예 GROWTECH Antalya

농산업

GROWTECH ANTALYA (튀르키예/안탈리아)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농산업 시장 트렌드

- (시설원예) 터키 내 온실 건설 및 장비 제조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70개의 로컬 기업을 포함해 약 90개 업체가 활동 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자국 생산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함. 온실 부문에서 유럽 2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성장 부문은 과일·채소 및 꽃·장식용 식물 재배용 온실
- (종자) 터키 종자 시장은 한국에 비해 2.6배 이상 높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종자 선진국에 해당되며. 토마토와 같은 가지류에 대한 선진 종자가 다수 개발되어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십자화과 등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특히 토마토는 Pembe 및 대왕 등 다양한 종자가 개발되어 있으며 고추 및 오이 등도 국내와는 다른 종자 특징을 보유하고 있음. 종자의 실질적인 현지 테스트, 등록, 마케팅을 대행하는 종자 수입유통사는 터키 정부에서 공식 승인된 약 20개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테스트 및 등록 과정에 있어 인보이스 기준 20%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통사도 존재
- (농약) 터키 농약 시장은 살균제와 제초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요를 보이며, 농가 규모와 수출 목적에 따라 제품 선호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임. 살균제는 전체 작물 재배에 걸쳐 사용되며, 곡물 및 산업 작물에는 제초제가 더 많이 사용됨. 터키의 대규모 농가나 수출 지향 농가는 수입 고가 농약을 선호하며, 특히 친환경 농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중소형 농가는 주로 저렴한 국내 복제 농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학 농약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음. 터키는 EU로의 농산물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EU의 농약 규제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함. 최근 글리포세이트 사용 규제로 인해 대체 농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항성을 줄이는 대체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주력 수출 전략 품목

- (종자) 토마토 : 토마토는 터키에서 글로벌 수입액, 한국 수입액, 생산량 등이 가장 높음 품목. 터키 내 우수 토마토 품종 다수 개발되어 있어 일방적인 수출보다는 기술 교류 추천, 양배추: 한국 수입량 토마토와 함께 가장 높은 품목으로 분류. 가지과 대비 수요는 부족하나, 한국의 십자화과는 고품질 종자로 현지에서 분류됨

튀르키예 GROWTECH Antalya

농산업

GROWTECH ANTALYA (튀르키예/안탈리아) 박람회 개최국가 주요 정보

■ 관세/통관/검역 제도

- (종자) 사전수입신청서 제출 필수이며 수출업체는 ‘유전자 비조작 서약서’ 제출이 필요함. 2013년 5월 1일 발효된 한-터키 FTA 협정으로 협정세율 적용되며, FTA 협정과 별개로 對터키 상업용 종자 수출시 필수사항인 ‘사전수입허가’ 증명서 제출 시 관세 1% 적용. 이 외 전염성 또는 유해 유기체 포함 여부, GMO 조작 여부에 대한 실험실 수준의 정밀검사 시행
- (농약) 터키로 농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식물 보호 제품 등록 및 시장 공급에 대한 규정」에 따라 농약 등록 절차 수행 필요. 원칙적으로 터키에 등록된 농약만 수입 및 시장판매가 가능함. 다만 터키는 농약 등록 신청인이 본사를 제외하고 최소 3개의 터키 지역 사무소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의 현지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진출전략 및 유의사항

- (종자) 제품 테스트, 등록, 마케팅, 판매 대행을 위한 검증된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을 추천함. 또한 터키 농림부에 공식 등록된 수입업체만이 종자 직접 수입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터키 종자 유통업체들은 이들 수입업체를 통한 간접 수입형태로 수입 종자를 판매 및 유통하고 있으므로 참고 필요. 터키의 농업 환경은 농업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낮은 농업 생산성을 보임. 특히 연중 수요가 높은 채소 작물은 겨울철 재배가 힘들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거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됨. 이에 터키 농부들은 높은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냉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우수한 내한성을 보유한 채소종자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 또한 채소작물의 시설재배 면적 비중이 낮고 노지 재배 비중이 높아 외부 자연환경에 견디기 용이한 단단한 강도의 줄기를 가진 품종을 선호. 현지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종자의 재배적 특성을 강조한 제품 진출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농약) 터키 시장 진출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변동성이 큰 환율임. 현지 경제 성장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이 지속되어, 수출 대금 결제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며, 일부 현지 파트너가 기술 자료만 취득 후 협력을 취소하고 카피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 필요